국가원림의 지당 수리기술 변천

강정모*, 이재용, 성선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학부생,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조교수

1. 서론

전통원림에서 수경관은 건축, 식물과 더불어 경관에서의 가장 핵심 요소이다(이행렬, 김선례, 2012). 이 중 지당은 물이 고이는 성질을 활용하여 정적 수평적 수면의 투영미와 청명성을 감상하기 위하여 조성한 일종의 그릇으로 통수, 통기의 기능적 역할과 시·청각 등의 감각을 통해 인식되는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다(문옥상, 2007). 그러나 이전까지 지당에 관한 연구는 원림의 조영적 측면에서 이루어졌고(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원형을 밝히기 위해 지당의 배치, 규모, 형태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문옥상, 2007) 원론적 내용이 아닌 실제 수리 사례를 확인하여, 보다 직접적인 시공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호안은 지당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고인 물을 담는 필수적인 요소로, 지당의 조성 이후 수리 과정에서 이의 형태적·구조적 변화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를 확인하여 국가원림 내 지당에서 어떠한 형태적·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원림 내 지당에서 시행된 정비사업을 검토하여 지당의 형태와 구조 변화를 고찰하고, 수리 기술의 변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 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명승 내 누정, 연못, 계류로 이루어진 대표적 조경공간인 국가원림에서 지당이 존재하고, 호안에 대한 보수 내역이 존재하는 총 8곳의 대상지 내 12곳의 지당을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연구 대상지

문화재명	지당명
광한루원	광한루지*, 완월정지*
보길도 윤선도 원림	회수담
담양 소쇄원	상지, 하지
담양 식영정 일원	부용지*
담양 명옥헌 일원	하지
진도 운림산방	지당*
화순 임대정 일원	상지, 하지
강진 백운동 원림	상지, 하지

*명칭이 존재하지 않아 설명의 용이성을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부여함

2.2 연구 방법

국가기록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구글에 키워드 '대상지명, 수리, 보수, 호안, 연지, 지당, 보고서'로 검색하여 정비보고서 46건, 학술논문 10건을 찾았으며, 관련 도서 9건을 수집하였다. 또한 현황 사진 확인 시 형태가 변하였으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보수의 경우, 구글 및 네이버 이미지 연도별 검색을 통해 완월정지의 호안석축 보수 연도를 찾았다. 이를 통해 최초로 확인되는 호안을 수리 이전으로 가정하고 그 이후 진행된 총 17건 수리 시의 변화를 찾아 경향을 도출하였다.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의 분류와 내용에 따라, 줄눈 형태, 단면 형상, 석재의 가공 및 크기 변화와 맞댄면, 뒷채움과 기초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고, 수리보고서 등의 상세한 보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형태만 분석하였다.

3. 분석결과

3.1 줄눈 형태

줄눈 형태의 분석 결과는 수리 이전 막쌓기가 7건으로 주를 이루었고 뒤이어 견치석축과 토축 호안은 각각 2건, 허튼층쌓기는 각 1회 발견되었다. 수리 이후 견치석축과 토축 호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허튼층쌓기와 바른층쌓기가 각 5건과 4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뒤이어 막쌓기는 3건 존재한다. 견치석축은 광한루지, 명옥헌 하지에서 수리 이전 발견되었고 이후 모두 허튼층쌓기로 변화하였으나, 이후 광한루원은 확장 시 일부분이 막쌓기로 변화하였다. 수리 이전 임대정 상·하지는 토축 호안으로 수리 이후 막쌓기로 변하였다. 막쌓기는 완월정지, 회수담, 소쇄원 상·하지, 운림산방 지당, 백운동 상·하지의 방식으로 이후 완월정지, 소쇄원 하지, 운림산방은 바른층쌓기, 회수담과 백운동 상·하지는 허튼층쌓기로 변하였다.

3.2 단면 형상

기록이 존재하는 대상지에서 수리 이전의 기록은 2건으로 회수담은 120mm 퇴물림하였고, 소쇄원 상·하지는 80mm 시공되었다. 수리 시 두 건을 제외하고 들여쌓기가 이루어졌으며, 수리 이후 이의 길이는 90mm 이상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50mm 이하의 길이는 '93년 회수담 수리, '91년 식영정 부용지 수리시 이루어졌다. 50mm 초과 90mm 미만은 '98년 회수담 수리 시 발견되었다. 90mm 이상은 '97년 회수담 수리와 '19년 명옥헌 수리, '98년 운림산방 수리 시 이루어진 방식이다. 수직 석축은 '91년 명옥헌과 08년 백운동 상·하지 수리 시 이루어졌으나, 명옥헌의 경우 이후 수리가 진행되어 들여쌓기로 변하였고, 백운동 상·하지도 '11년 이후 수리가 진행되었으나, 단면 형상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3.3 석재의 가공 및 크기변화

수리 이전 석재는 거친돌이 6건 존재하고 마름돌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수리 이후 마름돌이 8건, 거친돌이 4건으로 마름돌이 주를 이룬다. 거친돌에서 거친돌로 수리하는 사례는 1건으로 소쇄원 상지만 이러한 확인되며, 나머지 다섯 건은 모두 마름돌로 수리하였다. 토축 호안이던 임대정 상·하지는 거친돌로 변화하였으며, 나머지 견치석축, 소실의 사례에서는 모두 마름돌로 변화하였다. 마름돌에서 거친돌로 변화하는 사례는 광한루지 확장구간에서만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해당 수리 시 석재는 소형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해당 수리와 변화가 없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개의 사례는 모두 석재가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3.4 맞댄면

수리 이전 견치석이나 거친돌을 이용한 찰쌓기가 6건이고, 메쌓기가 5건과 토축 호안 1건이 존재하였으나, 수리 이후 모두 메쌓기로 변하였다. 찰쌓기는 '08년도 백운동 상·하지 수리를 제외하면 80년대 초반까지만 이용된 방식이다.

3.5 뒷채움 및 기초

수리 이전 잡석다짐은 회수담에서 보이는 방식이며 수리 이후 잡석다짐이 유지되었다. 수리 이전 진흙다짐 3건은 소쇄원 상·하지와 명옥헌에서 이루어진 방식으로 이후 소쇄원 하지와 명옥헌은 잡석다짐으로 변화하였으며 소쇄원 하지는 그대로 진흙다짐을 유지하였다. 수리 이전 철근콘크리트는 부용지에서 1건 존재하였으며 이후 진흙다짐으로 변화하였다. 운림산방과 백운동 상·하지는 수리 이전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수리 이후 각각 강회잡석다짐과 진흙다짐으로 변화하였다. 잡석다짐과 진흙다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철근 콘크리트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다 수리 시 점차 활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기초의 경우 수리 이전 잡석다짐은 회수담에서 보이는 방식이며 이후 구간별로 진흙다짐과 장대석을 이용하였다. 수리 이전 무근 콘크리트는 식영정에서 발견되며 이후 수리 시 그대로 무근 콘크리트를 이용하였다. 수리 이전 장대석은 3건으로 소쇄원 상·하지와 명옥헌에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수리 이후 각각 장대석이 유지되고 강회잡석다짐으로 변화하였다. 운림산방 지당과 백운동 상·하지의 경우 수리 이전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나, 모두 강회잡석다짐으로 보수되었다. 기초의 수리 이전 방식으로는 장대석이 주를 이루나, 이후 수리 방식으로는 강회잡석다짐이 대다수를 이루며, 무근 콘크리트는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원형규명을 위한 이론적 연구에서 벗어나 수리 이력들을 통해 변천사를 분석하고 경향성을 확인하였으며, 도출된 수리 경향을 통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지당의 형태와 구조가 추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문옥상(2007) 전통민가정원의 지당에 관한 연구: 서석지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진주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2021) 문화재청.
3. 원림복원을 위한 전통공간 조성기법연구(2017). 국립문화재연구소.
4. 이행렬과 김선례(2012) 한·중 전통원림의 수경관 연출기법 비교 연구: 소쇄원과 졸정원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0(4): 1-13.